

국가보훈처

## 아덴만의 영웅! 황기철 31대 국가보훈처장

아덴만의 영웅! 영웅은 고독하니 인품이 특출하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참군인으로 기억되는 황기철 31대 국가보훈처장을 만났다.  
대담을 통해 깊이 고뇌하며 세상을 보는 그의 통찰력을 들어보았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1956년 경상남도 창원군 웅천면 원포마을(현 창원시 진해구)에서 태어났다.

웅산 줄기 대발령을 벗 삼아 이순신 제독이 활약한 바다를 바라보며 유소년을 보낸 끝에 진해 명동초등학교, 진해 충무중학교, 진해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4년 해군사관학교 32기로 입학, 1978년 졸업한 진해 태생이다.

국회의정저널 편집장인 나는 이렇게 보았다. 그는 직감력이 매우 뛰어나며 총명하고 도량이 넓은 사람이다. 천재적인 두뇌와 재치가 있고, 냉정하면서도 설득력이 강하지만 인정이 많고 문학과 예술적 재능도 뛰어난 사람이라고... 기자가 마주한 인간 황기철에 대한 느낌이다.

직업에서는 자기 만족도가 가장 중요하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연관성이 있는 직업을 가지면 그만큼 일에 대한 의욕도 높아 지고 명예도 저절로 따라온다고 본다.

그래서일까. 1978년 해군 소위로 임관한 이후 고려대학교에서 다시 불어불문학 학사를 취득하고 영관급 장교 시절인 1990년부터 1992년 사이에 프랑스 파리 제1대학교에서 역사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프랑스 유학 중 왜곡된 한국 역사 강의를 바로잡기 위해 처음으로 프랑스어로 된 이순신 제독에 관한 논문을 작성하였고, 이 논문이 각 대학, 군, 역사학회 등의 전문가들에게 널리 알려져 해군에 보고되고 참모총장 표창까지 받았다.

광개토대왕함 함장을 지냈고, 진해기지 사령관, 2함대 사령관, 해군 작전사령관, 해군 참모차장, 해군사관학교장,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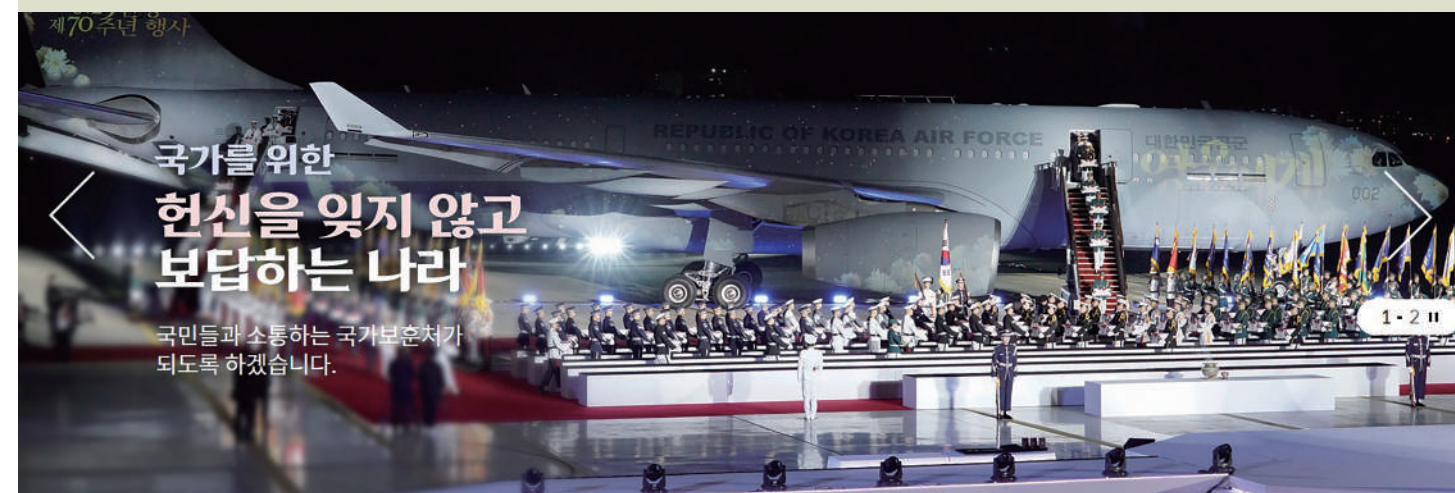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보훈처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의미의 물망초와 '감사'의 의미를 담은 카네이션, 균형의 의미를 담은 '총꽃'을 선사하셨다. 여기에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책임 있는 지원과 독립·호국·민주 3대 영역 간의 균형을 통한 국민 통합에 기여해 달라는 당부의 의미를 담았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

아덴만의 영웅!

영웅은 고독하니 인품이 특출하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참군인으로 기억되는 황기철 31대 국가보훈처장을 만났다.

대담을 통해 깊이 고뇌하며 세상을 보는 그의 통찰력을 들어보았다.





**2020년 12월 국가보훈처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세월이 빠르게 흘러 어느덧 5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감회가 남다를 거로 생각합니다.**

국가보훈처장직을 수행한 지 벌써 5개월이 다 되어 가네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느껴질 만큼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현장과 사람’에 중점을 둡니다. 때문에, 지난 5개월 동안 국가보훈처의 분야별 정책과 사업들을 꼼꼼히 살피면서 전국의 보훈현장을 찾아 보훈 가족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를 만나 소통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고, 이를 통해 느낀 바가 많습니다.

특히,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 가족, 그리고 각계의 다양한 분들이 보훈에 거는 기대가 정말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국가보훈처장직을 수행하면서 제가 느낀 것과 보훈에 거는 기대를 하나하나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참 군인 황기철 해군참모총장, 2011년 1월에는 '아덴만 여명작전'을 지휘하셨습니다. 이젠 국가보훈처의 지휘봉을 잡고 계시는데 각오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37년간 군에서 근무하면서 군인은 국가가 부여한 임무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을 자부심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그러한 희생과 헌신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라는 국정과제를 주도적으로 실천하는 정부 부처입니다. 여기에는 독립, 호국, 민주를 비롯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무 수행, 그리고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있습니다.

저는 특히,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과 그 유가족들께 합당한 보상은 물론, 우리 사회가 그분들을 존경하고 감



사해야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 또한 보훈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보훈의 기본 바탕에는 ‘애국’이 있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애국’의 가치를 확산시켜 국민통합을 이루고 더 큰 대한민국, 더 튼튼한 대한민국을 이루는데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노력과 정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았습니다. 제31대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장으로 취임하면서 당면한 현안 중에서 최우선 과제를 3가지만 꼽으신다면?**

추진해야 할 현안 과제들이 많지만, 첫째는 정부기념행사와 현충 시설의 일원화된 통합 관리입니다.

보훈의 주요 영역인 독립·호국·민주의 가치가 국민에게 조화롭게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보훈 기념시설이나 기념일 등 보훈을 기억하고 알리는 기능들이 통일적인 시스템에 기반하여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독립행사인 3·1절과 8·15광복절 행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현충 시설인 서울현충원과 전쟁기념관은 국방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 부처에 걸쳐 분산 주관·관리하고 있는 것을 보훈처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애국’의 가치를 통일되고 일관된 메시지로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가 보훈처에 있는 동안 이를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둘째는 보훈·의료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개선입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의료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성과도 있었지만, 저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광주·부산보훈병원 재활센터와 광주 요양병원을 완공하는 등 의료·재활·요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집 가까운 곳에서 의료비 부담 없이 편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탁병원 역시 현재 420곳에서 내년에는 640곳까지 확대 지정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국가유공자 주요 질환을 중심으로 전문진료센터를 특성화하고, 우수 의료진 확대와 최첨단 의료기술 도입 등을 통한 서비스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보훈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4월 접견한 로버트 에이브람스 유엔군 사령관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제대







로 표명하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며, 대한민국의 국제 보훈사업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보훈에서 비롯된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 높이기 위해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선진 보훈’ 모델을 만들어 가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 주재하는 참전국 대사님들을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보훈을 비롯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정부부처로 대상자의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억울함 없이 혜택을 받는 게 중요하데, 처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국가보훈처는 그동안 각종 사회경제지표를 상회한 연평균 약 4% 수준의 보상금을 인상하고, 각종

수당 인상 등을 추진하면서 보훈대상자의 전반적인 실질소득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보훈 급여금 인상 과정에서 발생한 보상격차 등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보상모형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또한, 일부 저소득 유공자의 경우 생활조정수당을 통해 보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훈대상자 간의 격차 해소와 함께 보훈의 주요 영역인 독립·호국·민주의 ‘균형적인 보훈’을 업무 추진의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보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도 국가유공자 등록에 따른 소요기간을 단축시켜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훈대상자 중심의



등록·심사체계를 구현하는 노력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우리의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수 있는 보훈 외교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십니다. 보훈 외교에 대한 계획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6·25전쟁 70주년이었던 지난해는 우리나라의 보훈 외교가 국제사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유엔 참전용사 마스크 300만 장 지원 등 6·25전쟁 70주년 사업을 통해 유엔참전국 정부 인사는 물론 참전용사들에게 70년이 지났음에도 대한민국이 잊지 않고 보답하고 있다는 ‘감동’을, 우리 국민에게는 ‘자긍심’을 주는 동시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보훈의 위상을 높이는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난 3월 개최된 한·미 2+2회담 때,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께서 마스크 지원에 대해 ‘한미동맹의 상징’이라고 극찬했는데, 우리 국가보훈처가 추진하고 있는 ‘보훈 외교’의 정책적 노력이 하나하나 그 성과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무척 큰 보람과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의 대표적인 공공외교 자산인 ‘보훈’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층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난해 11월 유엔참전국 대표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문의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말 참전국 보훈부장관 초청 ‘국제평화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오는 2023년 정전 70주년 계기 공동 사업도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에 참전용사를 대상으로 했던 재방한 초청 대상을 그 후손들은 물론 전후 한국에서 근무했던 유엔사 및 주한미군 예비역 장병들까지 확대하면서, 참전국 미래세대와 6·25전쟁의 의미를 함께 공유하기 위한 참전국별 교육자료 제작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이 워싱턴 D.C. 한국전쟁 기념공원 내에서 착공됐습니다. 6·25전쟁 전사자들의 이름이 새겨지게 되는데, 이러한 추모의 벽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요.**

5월 21일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쟁기념공원에서 착공된 ‘美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2019년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피력하시면서 가시화된 사업으로, 혈맹으로 맺어진 한미 양국의 인연과 한미동맹의 상징으로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높이 1m, 길이 50m 화강암으로 건립될 추모의 벽에는 미국 전사자와 한국 카투사 전사자 43,769명의 이름이 새겨지는데, 이는 6·25전쟁에서 전사한 미국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한국과 미국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기림으로써 양국 국민을



있는 가교로써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세계인의 가슴에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새기는 유산이자 교육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미국을 비롯한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보답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보훈의 현주소, 그리고 처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보훈의 철학이라고 할까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훈은 지난 시간 동안 ‘원호’의 개념에서 ‘예우’의 개념으로 변화하면서 많은 발전과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보다 국민 눈높이는 물론 경제 수준이 높아진 것은 물론, 유공자 분들의 고령화와 그 영역이 확대되면서 보훈을 둘러싼 여건들도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회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보훈도 이제는 한 차원 더 높은 도약과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훈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해드리면서,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밑거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 가족분들을 정성을 다해 모시면서, 특히 ‘보훈이 미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세대들이 국가유공자를 본받고 그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애국심을 고양하고, 보훈을 더 가깝고 친근하게 느끼면서 보훈 문화 확산의 주체가 되는 ‘젊은 보훈’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꿈이 군인이셨습니까?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그리고 현재 복무 중인 여군을 포함한 모든 국군장병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정확하게 말하면 ‘해군’이 꿈이었습니다. 어릴 적 우연히 이순신 제독의 영웅담을 듣고 위인전을 찾아 읽었고, 고등학교 때는 이순신 장군이 직접 쓴 난중일기를 읽으며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 제가 태어나고 자란 진해는 해군과 뱃꽃으로 유명한 도시인데, 주말에 외출을 나온 해군 장병들과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을 보면서 ‘나도 해군 장교가 되어 나라를 지키고 싶다’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군사관학교 시험을 봤고 합격했습니다.

단순히 꿈만 가지고 해군이 되고, 37년 간 해군으로 복무하며 해군참모총장까지 했던 것은 아닙니다. 부단한 노력과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 다. 그래서 저는 제가 존경하는 이순신 제독이 임금에게 장계를 올릴 때 썼던 내용의 일부인 ‘**今臣戰船(금신전선) 尙有十二(상유십이)**’을 항상 새기고 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라는 말인데 이 말이 저의 좌우명입니다.


저는 상황이 아무리 불리하고 힘들더라도 이 말을 떠올리며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꿈꾸면서, 군 복무를 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힘들고 고단한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스스로 본인의 좌우명을 한 번씩 깊이 고민해보고 이를 통해 희망을 꿈꾸면서 더 밝은 미래에 도전하고, 또는 자기 삶의 방향을 그려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국가보훈처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기 위한 주무 부처인 만큼,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아울러,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더욱 번영된 나라를 위한 기반을 닦는 ‘국민통합’과 ‘애국심 함양’의 매개가 되는 보훈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올해가 국가보훈처 창설 60주년인 만큼, 지난 60년간의 성과를 통해 질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보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 가족분들을 정성껏 모시면서 우리 사회에 보훈 문화가 확산돼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대외적으로는 참전국과의 교류·협력을 확대·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국민과 보훈 가족들께서도 국가보훈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집국 황태수]